

# 3분기 저축은행 우울한 성적표... 우리금융 M&A 행보는

5개사 당기순익 전년비 66.6% ↓  
SBI저축銀 518억 달성 '깜짝반등'  
OK저축銀 누적순익 704억 '최고'

상상인·애큐은 올해 적자 기록에도  
모두 수도권 매물로 '매력적' 평가

3분기 저축은행의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오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인수 의지를 타진한 만큼 3분기 실적이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3분기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42억원이다. 지난해 동기(1920억원) 대비 66.6% 줄었다. 3분기 실적을 저축은행 상위 10곳으로 확대하면 순이익은 375억원으로 축소된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7862억원) 대비 95.2% 늘었다. 하반기 반등을 예상한 업계의 관측이 빗나간 모양새다.

3분기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당기순이익 518억원 달



올 들어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성했다. 지난 1분기(37억원)와 2분기(68억원)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에 그치면서 부진을 겪었지만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어 OK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억원이다. 올해 누적순이익은 704억원으로 가장 높다.

웰컴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0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358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순이익은 각각 49.36%, 52.64씩 줄었지만 세

자릿수 순이익 달성에 성공했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83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114억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3분기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순손실은 677억원이다. 그간 중소기업 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만큼 경기하락에 취약했다는 설명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 유통

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단행한 만큼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손실은 총당 가능한 수준으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에 인수합병(M&A)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우리금융지주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각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현재 M&A시장에 이름을 올린 곳은 상상인·애큐은·한화·조은저축은행 등 네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 모두 서울, 경기·인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사유로 수도권 영업 진출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네 곳 저축은행 모두 매력적인 매물이란 평가다.

당초 우리금융지주와 한 차례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던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3분기 4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이어 애큐은저축은행 또한 3분기 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화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은 3분기 각각 10억원, 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누적순이익은 각각 60억원, 3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상인·애큐은저축은행 대비 규모는 작지만 흑자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상인저축은행과 애큐은저축은행의 인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의 규모가 나머지 저축은행 대비 뒤쳐지기 때문이다. 3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네 곳 거래자 수는 ▲상상인저축은행(24만3365명) ▲애큐은저축은행(19만4237명) ▲한화저축은행(1만640명) ▲조은저축은행(4013명) 순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저신용 및 중소기업 중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신규 회원 확보에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우리금융 측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포기 의사를 한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서울 아파트값 28주 만에 상승세 멈췄다

매매수급지수 4주 연속 하락세  
관망세 깊어져 전체 보합세 전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의 겨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28주 만에 꺾였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용산구(0.10%→0.05%)가 이촌동 주요 관심단지, 동대문구(0.06%→0.03%)는 답십리·전농·장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4%→-0.04%)는 상계동 구축, 강북구(-0.03%→-0.03%)는 미아동 대단지, 서대문구(0.05%→-0.

02%)는 흥은·흥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0.09%→0.04%)가 양평·당산동, 양천구(0.07%→0.03%)는 목·신정동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0.02%→-0.04%)는 역삼·개포동 구축, 관악구(0.01%→-0.03%)는 봉천동, 동작구(0.01%→-0.02%)는 상도·대방동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는 존재하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지며 거래가 감소하고 관망세는 깊어졌다"면서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희망가가 하락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33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6억7300만원) 대비 4000만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주공7단

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73㎡가 22억8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24억8000만원) 대비 1억95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 연속 하락했다.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책 시장의 상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및 단지별 가격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그룹 주요 관계사 직원들과 함께 'NEW 하나'를 다짐하는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 "모든 구성원 꿈 실현 위해 동반자 될 것"

하나금융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

"하나금융그룹만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라는 그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는 현재의 하나금융그룹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온 많은 유산을 계승하고 손님의 사랑에 진심을 더해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진심의하나(손님가치)'는 '손님의기

쁨, 그 하나를 위하여'란 하나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하나금융그룹을 거래하는 손님을 넘어 전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세상의 하나(사회가치)'는 함께 나누는 금융, 희망을 더하는 금융, 모두 함께하는 착한금융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다.

함 회장은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만의 성장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이 손님, 직원, 사회공공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은행, 더 뱅커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2023년 올해의 은행상 시상식  
'상생금융 3·3 패키지' 높은 평가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쉐라톤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개최한 2023년 올해의 은행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Bank of the Year in South Korea)'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수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아시아, 한국 3개 부문을 석권하며 국제적 위상을 증명한 바 있다.

더 뱅커는 1926년 처음 발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의 월간 금융지로, 매년 전세계 100대 은행 순위표와 120여개국 국가의 지역별 '올해의 은행(Bank of the Year)'을 선정하며 전 세계 금융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더 뱅커는 우리은행이 팬데믹 이후 어려운 금융환경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금융플랫폼(Won Biz Plaza)을 제공하고 금융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고객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지원(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기업과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이 우리은행의 창립이념이자 ESG 경영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과 서비스 고도화로 124년 역사를 거쳐 지켜온 시대적, 사회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원자력공과 사업 협력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원전 분야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너토키아툼(Energoatom)과 원전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의향서(LOI)

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협력의향서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대형원전 및 SMR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신규 원전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원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경험 교류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